



최근 새집증후군, 시멘트 독성, 포름알데히드, 라돈방사능가스 등으로 현대문명의 부작용이 부각되고 웰빙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는 상황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황토방, 황토인테리어, 황토집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또한, 베개, 이불, 속옷, 화장품 등 우리 생활 모든 제품에 관련된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황토란?

황토는 보통 흙보다 게르마늄 등 각종 특수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 있는 흙, 생명의 흙이라고 불리며, 원적외선 효과가 보통 흙보다 뛰어나 일반 흙보다 인체에 더 깊숙이 침투해 효과를 배로 높일 수 있다.

황토는 아주 가는 모래가 모여 만들어진 흙으로, 탄산칼슘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입자의 크기는 0.02~0.05mm이다. 또한, 석영, 장석, 운모, 방해석 등 다양한 광물 입자로 구성되어 있고, 화학적 조성을 보면 실리카, 철분, 알루미늄,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석회 등이다.

황토는 석영, 장석, 운모, 방해석등이 들어 있어서 이들 물질이 철분과 함께 산화작용을 받아

황색, 자색, 적색, 회색, 미녹색 등의 색깔을 나타낸다.

황토는 다량의 실리카를 함유하고 있으며, 이 실리카에 의해 쉽게 부서지지 않는 점력을 지니고 물을 가하면 찰흙으로 변한다.

황토의 분해력, 자장력, 흡수력, 투명성, 생명성 그리고 그 속에 녹아있는 약성들과 열을 가했을 때 황토에서 내뿜는 원적외선은 우리 몸의 생리작용을 활성화시켜 건강증진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황토에 열을 가하면 흙에서 내뿜는 복사열인 바이오 원적외선이 인체에 깊숙이 침투, 이 원적외선이 각종 질환이 원인이 되는 세균의 작용을 약화시키고 혈액 순환이나 세포조직 생성을 촉진한다.

황토 한 스푼에는 약 2억마리의 미생물이 들어 있어 다양한 효소들이 순환작용을 일으켜 황토를 '살아있는 생명체' 라고 불리운다. 황토 속에 있는 이끼, 곰팡이, 방사균, 세균 등의 미생물은 유기물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며, 미생물에 의해 분해된 유기물은 식물의 영양공급원이 된다.

이처럼 황토가 살아 있는 생명체라는 사실은

황토가 그 만큼 인간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 뿐만 아니라 미생물에 의해 분해된 유기물은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으로 활용된다.

황토는 표면이 넓은 벌집구조로 수많은 공간이 복층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 스폰지 같은 구멍 안에는 원적외선이 다량 흡수, 저장되어 있어 열을 받으면 발산하여 다른 물체의 분자활동을 자극한다. 즉, 황토는 우수한 세월동안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고 규소성 광물로서 쉽게 말해 '태양에너지 저장고'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황토의 우수성을 이용 옛 궁궐에서는 왕과 왕자들이 피로 할 때 쉴 수 있도록 3평 정도의 황토방을 궁내에 만들어 피로회복실로 사용했다고 한다.

황토의 효능

황토 속에 있는 미생물은 유기물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며 미생물에 의해 분해된 유기물은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으로도 활동되고 있다. 특히 아토피성 피부염은 황토염색의류와 침구, 토욕, 식사법 등의 체질개선으로 치료효과를 볼 수 있다.

황토는 황토 스스로 습도조절능력이 우수하고 원적외선을 방사하므로써 인체에 매우 유익한 재료이며, 다양한 무기질과 효소의 작용에 의해 수질 및 토양개선 및 치료, 미용효과 등의 효능이 뛰어나다. 또한, 황토는 천연염색재료로

알레르기 및 기타 피부질환의 우려가 없고 피부와 친화력이 우수하므로 피부의 유연성 증대 및 모공의 노폐물제거, 해독작용 등의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입자가 곱고 많은 산소를 함유하고 있고, 정화능력이 뛰어나 탈취, 탈지의 성질이 있다.

황토는 원적외선 방사가 월등하여 인체에 가장 유익한 에너지 곡선에 근접, 인체의 중심부 분이 35℃의 체온을 유지, 혈류량을 유지시켜 신진대사 촉진으로 피로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며, 황토1g 속에는 약 2억~2억5천 마리의 미생물이 살고 있어 다양한 효소들이 복합적으로 순환작용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인체에 유익한 원적외선을 방출하여 해독력, 흡수력, 자정력 등이 뛰어납니다. 하여, 시멘트의 독성 중화시켜 시멘트 건축물의 유해성을 막아준다. 또한 습기, 악취제거와 더불어 곰팡이와 잡균의 번식을 차단하는 기능이 매우 높다.

황토의 가장 근본적인 효능은 물질을 활성화

적조를 막는 황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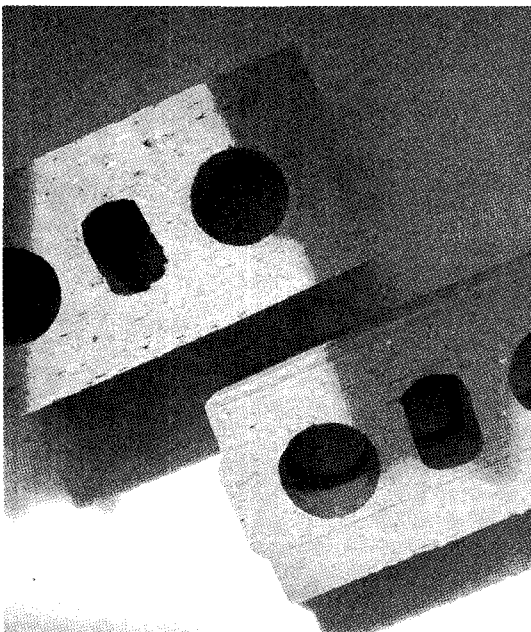
우리나라 연안의 적조현상은 어민이나 양식업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데, 황토는 이 적조를 막을 수 있다.

황토에서 파장되는 원적외선이 세포의 생리작용을 활성화하고 체내의 유해물질을 분해정화하며 황토를 오염된 하천이나 어항, 적조현상으로 죽어가는 바닷물에 황토를 뿌려주면 점진적으로 회복 된다.

시키는데 가장 효과가 있는 생명관선이라고 불리는 원적외선을 대량으로 흡수·방출하는데 있다. 이때 방사되는 원적외선은 인체에 매우 유익하게 작용되어, 원활한 신진대사 촉진으로 노화방지, 만성피로 방지, 각종 성인병 예방, 화상에 효과가 높다.

또한 세포의 생리작용을 활발하게 하고, 열에너지를 발생시켜 유해물질을 방출하는 광전효과가 있으며, 독소제거, 정화작용, 분해작용이 있는 황토는 인체의 독을 제거해주어 제독제, 해독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원적외선의 한파장으로 분류되는 원적외선은 물질에 흡수될 때 인체 내 세포를 구성하는 수분 등 분자에 영향을 줘 분자를 진동시키기 때문에 세포의 생리작용을 활발하게 하며, 물질 내부의 열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세포속에 유해물질을 내보내는 효과도 있다.



죽염의 효능을 높이는 진 황토

죽염은 오늘날에도 생활필수품에 이용되는 고급 약용으로 우리 인체에 가장 중요한 수분을 유지시켜주는 탁월한 효능이 있고, 특히 왕 대나무의 진황토를 재료로 한 죽염은 더욱 그 효과가 뛰어나 위급한 환자에게 먹게 하여 고비를 넘기게 하기도 한다.

약용으로 쓰이는 죽염은 위장병, 치통, 눈병 등 가정에서 생긴 사소한 질병을 고치는데 효험을 보이고 있다.

일반 죽염과 서해안의 천일염, 진 황토를 재료로 만든 죽염은 실험 결과 효력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진 황토 죽염은 의학 비방으로도 쓰이고 있다.

황토에서 원적외선의 의미

빛은 일반적으로 파장이 짧으면 반사가 잘 되고, 파장이 길면 물체에 도달했을 때 잘 흡수되는 성질이 있다. 그중에서도 원적외선은 파장이 길어 침투력이 우수해 사람이 원적외선을 몸에 쬐면 따뜻함을 느낀다. 예를 들어 30℃의 물속에서는 따뜻한 기운을 느끼지 못하지만, 같은 온도의 햇볕을 쬐고 앉아 있으면 따스함을 느끼는데 그 이유는 햇볕 속에 포함되어 있는 원적외선이 피부 깊숙이 침투하여 열을 만들기 때문이다.

원적외선은 태양광선 중에서 가장 무해하며 높은 열효율을 지닌 열선으로, 적외선 중에서도 인체에 가장 유익한 파장을 갖고 있어 피부의 심층까지 침투하여 세포를 촉진시켜서 체온을

높이는 작용을 하는데 이 때 땀을 다량 방출되면서 체내의 노폐물도 함께 배출된다.

황토의 활용

황토 집

우리 전통한옥하면 황토 흙과의 조화를 말할 수 있다. 전통 한옥에서는 벽을 비롯하여서 지붕에도 방바닥에도 황토가 사용된다.

지붕역시 알때라고해서 황토를 얹어서 윗풍을 방지하고 지붕의 기와나 이엉을 보호하였으며, 방바닥역시 황토로 구들을 덮고 그 위에 마감을 하고 자리를 깔았다.

대부분의 구조물에는 황토가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황토가 주 원료로 사용됐다.

흙이 갖고 있는 큰 장점중의 하나가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절약효과가 우수하다는 점이다. 흙

은 단열재로서 훌륭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축열효과도 뛰어나 열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 특히 황토는 주택자재 중 단열효과가 가장 뛰어나, 여름철에는 시원하고 겨울철에는 따뜻하다. 또한 황토는 특성상 한번 굳으면 강도가 매우 강해서 잘 떨어지지도 않아 우리민족에게는 정말 좋은 자연 재료였다. 황토집은 습기를 흡수하고 건조할 때는 다시 습기를 발산함으로 항상 쾌적한 습도를 유지시켜 주며, 벽, 바닥에 사용시 실내공기가 맑아지고 산소농도가 높아지며 복사열 방출로 건강에 좋다.

황토내의 원적외선은 유해균총서식 억제 미생물에 의해 각종 세균이나 진드기의 번식을 막아주며 유독가스를 해독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냄새제거 효과가 탁월하고 유해 전파 차단이 완벽하다. 황토는 천연의 재료로서 새집증후군을 막을 수 있다.

황토방

황토방은 원적외선의 흡수와 방출을 조절하여 인체의 원적외선을 적절하게 조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혈액의 흐름을 촉진하고 발한작용을 하며 통증을 완화시킨다.

또한 수은, 카드뮴, 구리와 같은 중금속등을 땀으로 체내로 내보내주며 탈취·방충의 효과가 있다. 식물을 잘 자라게 하며 공기를 정화하는 기능을 하며, 제습효과가 있어 곰팡이의 번식도 막는다.

하여, 긴 시간의 수면을 취해도 피로가 사라지지 않는 사람, 당뇨병, 신경통, 위장병 등 성인병에 시달리는 사람, 산모, 노약자, 물리치료 등으로 체력이 떨어진 사람, 집중력이 필요하고

황토의 기운을 받은 팔만대장경 신비

고려때 조판된 팔만대장경이 그 정확성과 정교함을 보존하고 있는 것은 바닷물에 적셔 말린 산벚나무를 재료로 하였다는 점과 보관 장소인 장경각 내부가 황토로 만들어졌기 때문으로 황토의 기운을 충분히 받은 팔만대장경은 습도 조절과 완벽한 통풍조절로 변질되지 않고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다.

팔만대장경, 규장각 등의 문화재가 몇 백년이 지난 현재까지 잘 보존되고 있는 것은 흡습작용과 농풍작용이 뛰어난 황토의 기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부인병없는 황토 아궁이

옛 여인들은 황토로 구운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부엌일을 했다.

그 시대에는 자궁암, 유방암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황토에서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인체의 독소를 제거하고 신체리듬을 원활히 해 부인병을 예방했기 때문이다.

짧은 시간이라도 숙면이 필요한 수험생 등에게는 아주 좋다.

혈액순환 촉진 및 피로 회복효과로 힘찬 아침을 보장한다.

아토피 증세를 크게 완화시키는 등 각종 질병의 치료효과가 높으며 특히 피부 미용에 효과가 크다. 일반 건축물의 주재료인 시멘트 독성 및 냉기를 차단하여 숙면을 유도하여 스트레스 해소효과가 매우 높다. 실내의 습도를 적당히 조절하고 악취를 없애주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켜주는 동시에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준다.

황토 찜질방

황토 찜질방은 인체에 강한 알칼리성분의 온기로 방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하여 습기가 차지 않고 성인병과 신경통 만성피로와 체내에 노폐물을 분해하는 자정능력이 있어 피부미용효과가 매우 뛰어나다.

황토 옹기

흙으로 구워 만든 옹기들은 흙이 숨을 쉬기 때문에 음식이 적당히 발효되어 맛을 내는데 황토

옹기는 황토의 성분이 독소가 있으면 제거하고 상하는 물질을 발효시켜 더욱 맛이 있게 한다.

우리의 전통식품인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이 적당히 발효되어 맛을 내는 이유는 옹기가 숨을 쉬기 때문이다.

그 밖의 다양한 용도

황토는 속에 미네랄성분이 피부의 윤기, 탄력성을 높여주고 부드럽고 깨끗하게 해주면 피부 보호기능과 화장독제거에 효과가 있어 여드름, 지성, 거친 피부에 더 없이 좋으며, 옛날 궁중에 서도 임금님이 기력회복을 위해 황토목욕을 즐겼다고 한다. 그리하여 황토를 이용한 비누, 팩, 화장품, 입욕제 등 피부미용에 관한 제품 중에 황토를 이용한 제품이 줄지어 출시되고 있다.

황토를 이용한 제품은 비단 피부미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겉옷, 속옷, 배게, 이불, 침대, 모자 등 우리 생활 전품목에 걸쳐 생산되고 있으며, 탁월한 건축자재로 몰탈, 벽돌, 판넬, 타일, 몰탈 등 다양한 건축자재의 원자재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건축자재들을 이용한 황토 팬션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BN

임금님의 병을 치료하는 황토방

왕실에서는 황토가 뒷날 세상 사람들을 구하는데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으며, 특히 온천을 개발하여 눈병을 치료했던 세종, 세조임금은 황토를 민간에 알리게 했다.

또한 왕과 왕자들이 피로할 때면 쉴 수 있도록 피로회복실로 궁내에 황토방을 만들어 사용했다.